

-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너희의 단계를 체크하여라: 너희의 마음이 아버지 한 분에게만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 카르마가 얽힌 관계와 맺어져 있느냐?
- 질문:** 너희 자신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어떤 두 가지 측면에 대해 매일 차트를 기록해야 하느냐?
- 대답:** 너희의 요가와 활동에 대한 매일 차트를 기록해라. 너희들이 봉사를 방해하지는 않았는지 체크하여라. 언제나 너희의 마음에 물어보아라: 나는 아버지를 얼마나 기억하느냐? 나는 시간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나는 남을 보고 있느냐? 내 마음이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형태에 연결되어 있느냐?
- 노래:** 너희의 마음의 거울 속에서 너희의 얼굴을 보아라...

음 산티. 누가 이렇게 말했느냐? 무한한 아버지가 말했다: 오 영혼들아. 영혼들은 살아 있는 존재들이다. 영혼은 떠났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살아 있는 존재가 떠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는 지금 여기에 직접 앉아 설명하고 있다: 오 영혼들아, 기억하라! 너희들은 단지 현재의 이 생만을 보아서 안 되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타모프라단하게 되었기에 사다리를 내려왔고, 불순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분명히 죄를 지었다. 이것은 이해해야 하는 문제이다. 너희들의 머리 위에 과거 생들의 죄가 아직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를 너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너희들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너희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요가에 머무를 수 있느냐? 너희들이 아버지와 좋은 요가를 할 수 있는 만큼 너희의 죄가 그에 따라 없어질 것이다. 바바가 말한다: 나를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의 죄가 없어질 것을 내가 보장한다. 너희들 모두 너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 나는 아버지와 얼마만큼 요가를 하느냐? 너희들이 요가를 하고 순수해지는 정도만큼 너희의 죄가 그에 따라 잘려져 나갈 것이다. 너희들의 요가도 역시 늘어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순수해지지 않으면 요가를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루 종일 단 15분도 요가를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너희 자신에게 물어 보아라: 내 마음은 쉬브 바바에게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 욕신을 가진 존재에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것이 카르마가 있는 관계에 연결되어 있느냐? 오직 너희 자녀들에게만 마야가 폭풍을 일으킨다. 너희들은 스스로 너희의 단계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 너희들의 마음이 쉬브 바바에게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 어떤 욕신을 가진 존재에게 연결되어 있느냐? 만일 카르마의 관계에 연결되어 있으면 너희에게 많은 죄가 남아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마야가 너희를 구렁텅이에 빠트린다. 학생들은 내적으로 그들이 합격할 것인지 아닌지,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등수대로이다. 너희 영혼들은 너희 자신에게 유익을 주어야 한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이런 지시를 내린다: 만일 순수하고 자비로운 영혼이 되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싶으면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첫째이다. 너희들은 처음에 순수하게 내려왔고, 순수하게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불순한 자들은 결코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없다. 끊임없이 너희가 얼마만큼 아버지를 기억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너희의 마음에 물어 보아라. 뒤에 앉아 있는 학생들의 양심은 분명히 그들을 찌를 것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좋은 행동이 있어야 한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너희의 머리 위에 얽힌 죄의 짐을 덜어라. 너희들의 죄의 짐은 기억을 하지 않고는 없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버지와 많은 요가를 해야 한다. 높은 중에서 가장 높은 아버지가 말한다: 너희의 아버지인 나를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의 죄가 없어질 것이다. 그 때가 더 가까이 오고 있다. 너희들은 너희의 몸을 믿을 수 없다. 사고들이 갑자기 일어난다. 예기치 못한 죽음이 지금 한창이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 자신을 체크해야 한다. 하루 종일 너희의 요가와 활동을 체크하기 위한 차트를 기록해라.

너희들은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죄는 먼저 너희의 생각과 말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행동에 들어온다. 너희 자녀들은 이제 선행을 할 수 있는 올바른 지각을 얻었다. 너희들은 누군가를 속였느냐? 불필요하게 거짓말을 했느냐? 봉사에서 어떤 방해를 했느냐? 누군가의 이름과 형태에 사로잡힘으로써 너희는 야기야의 아버지를 욕되게 한다. 아버지가 말한다: 누구에게도 슬픔을 주지 말아라. 한 아버지의 기억에 머물러라. 너희들은 만일 너희가 기억에 머물지 않으면 너희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만일 지금 실수를 하면, 끝에 많은 후회를 해야 할 것이다. 낮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낮은 지위를 차지할 것임을 이해해라.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너희의 지각을 사용해라. 모든 사람에게 이 만트라를 주어라: 아버지를 기억해라! 너희 자녀들에게는 목표가 주어졌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 첫째로 주된 것은 아버지를 기억하는 일이다. 너희들은 창조자와 피조물에 관한 지식을 얻었다. 너희들은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매일 새로운 내용을 얻는다. 너희들은 또한 다양성의 형태(카스트의 상징-역주) 이미지를 설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 그림을 사다리 그림 옆에 놓고, 너희가 어떻게 다양한 가문에 들어가는지를 설명해라. 너희들은 남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하루 종일 되새겨야 한다. 봉사를 하는 것에도 아버지의 기억이 있다. 오직 아버지의 기억을 통해서만 너희의 죄가 없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 자신에게 유익을 주어야 한다. 아버지는 너희 위에 63생의 죄가 올려져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너희들은 죄를 지음으로써 사토프라단한데서 타모프라단하게 된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 속하므로 어떤 죄가 되는 행동도 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고, 악해지고, 집을 부수고, 잡담하고, 언쟁하는 것은 모두 많은 손실을 일으킨다. 그것들은 아버지와 의 요가를 끊는다. 그러므로 그것은 대단히 큰 죄이다. 어떤 사람들은 정부를 배반한다. 그들은 정부의 비밀을 적에게 넘겨주고, 큰 손실을 끼친다. 그러므로 그들은 대단히 심한 벌을 받는다. 너희 자녀들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지식의 보석들이 나와야 한다. 너희들은 심지어 쓸데없는 소식에 관해 서로에게 물어보아서도 안 된다. 오직 지식에 관해서만 말해라. 너희들은 아버지와 어떻게 요가를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루 종일 오직 이런 측면들만을 생각해라. 그림들 앞에 가서 앉아라. 너희들은 지각 속에 지식을 갖고 있다. 신봉의 길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여러 형상들을 숭배하지만 그들에 관해 아무 것도 모른다. 그것은 맹목적인 믿음이고 우상숭배이다. 바르트는 이런 것들로 아주 유명하다. 너희들은 지금 남들에게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전시장에 온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와서 보고 이해할 만 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보지만 결코 센터에는 가지 않는다. 매일 세계의 상태는 악화되고 있다. 참으로 많은 싸움이 있다. 아주 많은 일들이 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묻지도 말아라!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 이 세계는 타모프라단하다. 그들은 폭탄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면서도 남들이 그렇게 많은 폭탄을 가지고 있으니 그들도 가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남에게 예측될 것이라고 말한다. 나오는 모든 아이디어들이 멸망을 위한 것이다. 멸망은 일어나야 한다. 샹카르가 이것이 일어나게 고취시킨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영감의 문제는 없다. 우리는 드라마를 확고히 믿는다. 마야는 아주 강력하다. 그녀는 심지어 나의 자녀들까지도 악덕에 빠지게 만든다. 너희들은 어떤 이의 몸도 사랑하지 말고, 어떤 이의 이름과 형태에도 사로잡히지 말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그러나 마야가 아주 타모프라단해서, 너희를 어떤 이의 몸에 사로잡는다. 그녀는 너희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너희의 코를 낚아챈다. 아버지는 너희 자녀들에게 슈리마트를 따르라는 것을 여러 번 설명했다지만, 어떤 이들은 따르지 않는다. 라반의 지시는 즉각 너희의 마음에 들어온다. 라반은 너희를 감옥에서 풀어주지 않는다. 아버지가 말한다: 너희 자신을 영혼으로 여기며 아버지를 기억해라. 우리는 지금 곧 고향으로 간다. 우리는 지금 반 사이클의 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있다. 너희들이 그곳에 있을 때에는 너희의 몸에 병이 없었다. 여기에서 너희는 참으로 많이 병들었다. 이 세계는 지금 지옥의 심연이다. 저 사람들은 가루다 푸라나(경전)를 공부한다. 그러나 그것을 읽어주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그것에 관해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전에는 그가 신봉에 대단히 도취되어 있었다고, 바바 자신이 말한다. 그는 신봉을 통해 신을 만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행복했고, 따라서 그는 계속 신봉을 행했다. 너희들이 “오 정화자여, 오소서!”라고 소리쳐 부르는 것은 불순해졌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신봉을 행한 것은 좋은 일이다. 왜 너희가 신을 기억했느냐? 신이 와서 신봉의 결실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가 어떤 결실을 주겠느냐? 아무도 이것을 모른다. 아버지가 말한다: 기타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해라. 그들은 우리 종교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기타에 언급된 첫째로 주된 것은 “신이 말씀하신다”이다. 그러면, 누가 기타의 신이냐? 신의 소개가 필요하다. 너희들은 이제 영혼이 무엇이고 지고의 영혼이 무엇인지를 안다. 사람들은 지식의 이런 면들에 대해 대단히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들은 신봉을 대단히 좋아한다. 그들은 지식에서 저 멀리 도망쳐간다. 순수해지는 것은 참으로 좋다. 이제 순수한 세계가 세워져야 하고, 낡은 세계는 파괴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전혀 듣지 않는다. 아버지의 지시는 “악을 듣지 말아라” 등이다. 그러면 마야는 “바바의 말을 듣지 말아라!”라고 말한다. 마야의 지시는 “쉬브 바바의 지식을 듣지 말아라”이다. 마야는 너희를 아주 심하게 때려서, 이 지식이 너희의 지각 속에 남아 있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를 기억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오직 친구와 친척 등 육신을 가진 존재만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나 하나만을 기억해라”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아버지를 거역하면서 “나는 아무개를 기억한다”라고 말한다. 만일 너희가 남들을 기억하면, 너희는 추락한다. 너희들은 그런 것들에 싫증을 내야 한다. 이 세계는 완전히 더럽다. 새로운 천국이 우리를 위해 세워지고 있다. 너희 자녀들은 아버지와 세계 전체의 소개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공부에 계속 전념해야 한다. 아버지가 말한다: 너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라. 나라드의 예가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말한다: 너희가 얼마나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보아라. 오직 기억을 함으로써만 너희의 죄가 없어질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너희는 쉬브 바바를 기억해야 한다. 다른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말아라. 끝에 가서 너희가 몸을 떠날 때, 오직 쉬브 바바만이 기억되어야 한다. 쉬브 바바를 기억하고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려라. 아무도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누가 너희 브라민들에게 이 지식을 주었느냐? 누가 너희 브라민들을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이들로 만드느냐?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 빛의 점이다. 그러므로 그분도 역시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분이냐? 그렇다. 그는 모든 이들 중 첫째이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우리 브라민들을 이렇게 만들겠느냐? 그는 피조물의 시작, 중간, 끝의 전체 지식을 갖고 있다. 너희 영혼들도 역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도 역시 영혼이다. 신봉의 길에서 비슈누는 이 원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우리는 지고의 영혼이 트리칼다르쉬, 트리멀티, 그리고 트리네트리라고 말한다. 그는 우리를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이들로 만든다. 우리에게 이 지식을 말하기 위해 그는 틀림없이 인간의 몸에 들어올 것이다. 오직 창조자만이 창조물의 시작, 중간, 끝에 관한 지식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아무도 창조자를 모르는데, 어디에서 그들이 창조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이제 쉬브 바바가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그는 지식의 대양이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84생의 사이클에 들어오는지를 안다. 그 자신은 환생의 사이클에 들어오지 않지만, 그는 그가 우리에게 주는 이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쉬브 바바는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첫 번째 존재이다. 오직 쉬브 바바만이 우리를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이들로 만들 수 있다. 그는 우리를 순수하게 만드는데, 왜냐하면 그는 창조자이면서 또한 정화자이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의 생에 관해 안다. 쉬브 바바는 브라마를 통해서 창조를 수행한다. 그는 카란카라반하르이다. 너희들은 공부하고, 또한 남들을 가르쳐야 한다. 아버지는 너희를 가르치고, 그 다음 “너희도 남들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한다. 너희들을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이들로 만드는 것은 쉬브 바바이다. 그가 말한다: 나는 세계 사이클의 지식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그것을 줄 수 있다. 너희들은 어떻게 84생을 태어나느냐? 너희들은 지각 속에 너희의 84생의 이야기를 간직해야 한다. 너희들이 이만큼만이라도 지각 속에

간직하면 지구의 통치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지식이다. 너희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요가를 통해서이다. 하루 전체의 차트를 기록해라. 만일 너희가 기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차트를 쓰겠느냐? 너희들은 하루 종일 무엇을 하느냐? 너희들은 이만큼 기억한다, 그렇지 않느냐?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경전을 공부했는지 또는 얼마만큼 자선을 베풀었는지 등의 차트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희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에 머물렀는지, 그리고 몇 명에게 행복한 상태에서 아버지를 소개해 주었는지를 말할 것이다. 너희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내용들을 거듭해서 되새겨라. 너희들이 받는 지식을 지각 속에 간직해라. 매일 멀리를 읽어라. 그것도 역시 아주 좋다. 멀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든 그것을 거듭해서 되새겨라.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사는 사람들보다 바바를 훨씬 더 많이 기억한다. 바바를 보지도 못한, 굴레에 묶인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그들은 바바를 아주 많이 기억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도취되어 있다. 그들은 집에 앉아서 비전을 본다. 아니면 이 지식만 들어도 믿음이 생긴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말한다: 계속 너희 자신을 보며 너희가 어떤 고귀한 지위를 차지할 것인지를 알아라. 너희들의 행동이 어떠하냐? 너희들은 음식이나 마실 것에 유혹을 느끼느냐? 그런 습관을 들이지 말아라. 주된 것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기억을 하는 일이다. 너희들의 마음에 물어 보아라: 나는 누구를 기억하고 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남들을 기억하느냐? 너희들은 지식을 훈습해야 하고 죄를 없애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죄를 짓는데, 묻지도 말아라! 신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라! 그러나 그들은 말한다: 나는 다른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마야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앗차, 계속 마야의 영향 아래 남아있어라. 너희들은 슈리마트를 따를 수도 있고, 아니면 너희 자신의 마음의 지시를 따를 수도 있다! 너희들이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로 합격할지 확인해보아라. 너희들은 어떤 지위를 차지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21생 동안 손실을 겪을 것이다. 너희들이 카르마티트 단계에 도달하면 육체의식은 언급조차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영혼의식을 가지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 앗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나마스테.

#### 실천 요지:

1. 이 이야기의 아버지를 모욕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너희에게 준 올바른 지각을 가지고 좋은 행동을 해라. 절대로 누구에게도 슬픔을 주지 말아라.
2. 서로에게 불필요한 소식을 묻지 말아라. 너희들끼리는 오직 지식에 관해서만 말해라. 거짓말을 하고, 악해지고, 집을 부수는 일을 그만 두어라. 오직 너희의 입에서 보석들만 나오게 하여라. 악한 것들은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라.

**축복:** 끝없는 행복이라는 보물로 늘 가득한 태평한 황제가 되어라. 너희는 날마다 행복의 대양에게서 행복이라는 끝없는 보물들을 받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의 행복은 결코 사라질 수 없다. 너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걱정할 수 없다. “내 재산은 어떻게 될까?”,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와 같은 생각은 없다. 오직 변화가 일어날 뿐 아니겠느냐? 낡은 세계에서 제아무리 고귀한 사람들도 오래 되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태평해졌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좋을 것이다. 브라민들에게는 만사 모든 것이 좋을 뿐, 나쁜 것은 무엇 하나도 없다. 아무도 그것을 너희에게서 가로채갈 수 없을 정도로 너희는 그런 군주가 되었다.

**솔로건:** 이 세상을 영적인 놀이라 여기고 상황들을 장난감이라고 여겨라, 그러면 너희는 낙담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 옴 산티 O M S H A N T I \*\*\*